

## 어명소 2차관, “철도관제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 - 23일 철도관제센터·용산역 찾아 열차충돌 방지 위한 관제·신호시스템 점검 -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월 23일 오후 3시,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용산역 관제실을 찾아 관제·신호 등 안전체계를 점검하였다.
  
- 어 차관은 “지난달 그리스에서 여객열차가 마주 오던 화물열차와 충돌하여 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발생했는데, 이는 역장(역 관제)의 잘못된 지시와 고장이 자주 발생했던 신호 설비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 라고 언급하며,
  - “우리나라는 열차 충돌 방지를 위한 신호 시스템과 중앙관제의 감시·통제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충돌사고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인적오류에 따른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고,
  
  - “철도공사는 이번 그리스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인적오류 방지를 위해 관제사와 기관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관제·신호 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며, 예방 정비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을 지시하였다.
  
- 이어, 어 차관은 “정부도 철도관제 자동화에 대한 투자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 이라면서, 한국철도공사의 간부진부터 일선 현장에 계신 근무자분들까지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 을 당부하였다.

2023. 3. 23.

국토교통부 대변인